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7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3. 29.

발 의 자 : 서삼석·이학영·서영교
양정숙·송재호·박 정
홍정민·이해식·윤재갑
김주영·진성준·신정훈
김종민·박영순·허 영
김영배·이용빈·임종성
김성환·장경태·주철현
김영진·김원이·황운하
임호선·최종윤·이원택
윤준병·민형배·김철민
이규민·조오섭·김승원
김민철 의원(3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(이하 “식량자급등”이라 함)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,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 자급목표가 설정되었음.

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식량자급등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9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007년 이래 가장 낮았으

며 식량자급률 또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.

식량자급등이 코로나19시대에 핵심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등 목표는 설정 기한이 장기일 뿐 아니라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음. 또한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, 새로운 자급목표 설정 시 기존 자급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식량자급등의 목표를 포함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하고, 식량자급등의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며, 농지면적 확보 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 및 17조제4항 신설).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5년마다”를 “3년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”을 “자급목표, 그 추진계획(농지면적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),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”를 “사항을 3년마다 설정·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전체 식량자급률 및 품목별 식량자급률
2. 전체 곡물자급률 및 품목별 곡물자급률

제17조의 제목 중 “연차보고서”를 “연차보고서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기본계획이 종료된 이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)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·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<u>5년마다</u>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.	제14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마다</u> ----- ----- ----- -.
② 제1항에 따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<u>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</u>	2. ----- - <u>자급목표, 그 추진계획(농지 면적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),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</u>
2의2. ~ 6. (생 략)	2의2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	③ ----- -----

<p>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.</p> <p>1. <u>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</u></p> <p>2. <u>모든 곡물의 자급률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 <p>제17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-----</p> <p>-----<u>사항을</u></p> <p><u>3년마다 설정·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<u>전체 식량자급률 및 품목별 식량자급률</u></p> <p>2. <u>전체 곡물자급률 및 품목별 곡물자급률</u>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
---	---